

한 여름밤 흥겨운 타악 질주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내일까지 전북도청서 개최

토요일 야외 상설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이를 연속 공연된다.

30일 전통문화마을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공연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7월 31일, 8월 1일 이들 동안 전북도청야외공연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된다.

금요일인 31일에는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선화궁주의 사랑', '내 사랑 진채선', '달아달아 높이 올라라', '매창 뜰에 이화우 흠날릴제', '비람아 완산칠봉 바람아' 등을 판소리 합창으로 선사한다.

전주 판소리 합창단은 지난 2006년 창단돼 창작에 의한 판소리 독창과 합창을 통해 판소리 공연 양식을 개발하고 전북 지역 14개 시군이 가진 문화 유산 등을 주제로 판소리 합창곡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로 주목 받았다.

토요일인 8월 1일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합굿마을 문화 생산자 협동조합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공연이 전북도청야외공연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된다.

의 타악 질주가 이어진다.

합굿마을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은 젊은 연주자들이 만든 예술인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전주 지역 내에서 향토 문화 유산 등을 주제로 판소리 합창곡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로 주목 받았다.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공연을 기획하고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우리가락

우리마당 무대에서는 대북과 모듬북의 울림, 판소리와 삼도 사물놀이, 대나무로 만든 창작 악기인 뽕부과 산투르(양금), 봉고, 다르부카 등 타악기가 어울린 타악 앙상블과 전주의 전통 연희인 전주 기잡놀이, 버나와 소고, 죽방울 등 다양한 연희가 함께 어우러진다.

박해정기자

/뉴시스

현대적으로 표현된 ‘와유산수’전

김기나 작가, 수묵담채화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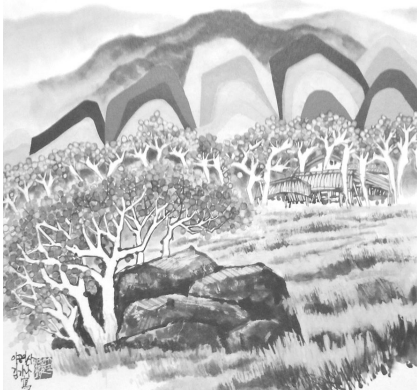
8월 5일부터 도립미술관 서울관

김기나 작가가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 ‘와유산수(臥遊山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본수묵담채화와 여기에 색한지를 활용해 질감을 입힌 수묵담채화 30여점을 선보인다.

와유산수(臥遊山水)는 늙어 거동이 불편할 때 젊은 시절 다녔던 명산대천(名山大川)의 풍경을 벽에 그려놓고 누워서 즐겼다는 중국 남방조시대 종병(宗炳)의 일화에서 따온 말이다.

임재광 미술평론가는 “김기나는 단청을 연상시키는 오방색의 한지와 수묵채색을 혼용함으로써 전통수묵산수화풍을 탈피해 현대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가 주로 표현한 산, 물, 나무, 목가적 풍경들이 누구에게나 행복으로 다가갈 바란다”고 평했다.



김기나 작가는 남원 출신으로 공주 사범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공주교대, 공주대, 전주대 등에서 한국미술사, 동양화론 등을 강의했다.

3회의 개인전과 한중미술교류전, 한국미술협회전 등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 등에 100여회 참여했다.

박해정기자

광고문의 063-249-3030

한옥마을에서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

전주문화재단, 다음달 4일부터 공연·선물 증정

전주문화재단(임환 이사장 직무대행)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 전주마당창극 여름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공연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공연을 펼친다.

관객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매회 공연을 찾은 관객 중 ‘추암새 즉석 경연’, ‘최장거리 관객을 찾아라’, ‘전주막걸리 빨리 마시기’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현대옥 풍나물국밥 식사권, 전주모주 선물세트, 1박 숙박권, 공연기념 티셔츠, 출연진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북 등 풍성한 선물을 증정한다.

본인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공연 관람 인증사진과 지정 해시태그 3개(#전주한옥마을 #전주마당창극 #전하맹인)를 함께 올린 관객객 중

“이색 마라톤 즐겨요”

8월8일 ‘일렉트로 대쉬’ 개최

서울시는 ‘2015 한강공방 여름축제’의 일환으로 내달 8일 야간 이색 마라톤 대회인 ‘일렉트로 대쉬(Electrodash)’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일렉트로 대쉬는 총 3.6km 코스로 여의도의 한강을 바라보며 구간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마라톤이다.

2013년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과 유럽 2개국, 아시아 2개국에 진출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마라톤 완주 후에는 메인 무대에서 오후 8시부터 일렉트로닉 DJ 애프터 파티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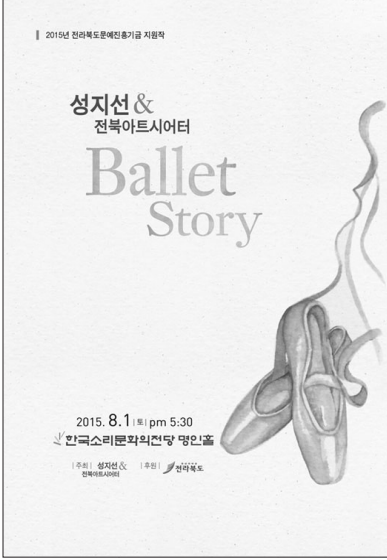
마지막 무대는 그룹 ‘올라라세션’이 장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일렉트로 대쉬 홈페이지(http://www.electrodash.co.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이며,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하다.

참가자에게는 마라톤 티셔츠와 야광 팔찌, 야광 목걸이, 야광 안경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총무과(02-3780-0625) 또는 일렉트로 대쉬(02-546-3274)로 문의하면 된다.

주말이 즐겁다



▲ 성지선 & 전복아트씨어터 Ballet Story 1 일 오후 5시 30분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전석 1만 원 010-5383-0222



▲ 추억은 방울방울 1~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사랑방 223-5551~2



▲ 한국스즈키음악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2015. 8. 1 (토) 오후 7:30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2015. 8. 2 (일) 오후 5:00 대우시민회관 그랜드콘서트홀



▲ 메가마인드 2일 오후 1시, 3시 전북도립미술관 이트홀 280-6888

행사 소개 요청 muse4343@naver.com

삼례문화예술촌, ‘역동-날개를 펼치다’ 전시회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삼례문화예술촌 내 VM아트 미술관이 2015 프로젝트39인 ‘역동-날개를 펼치다’ 전시회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전시한다.

‘역동-날개를 펼치다’는 지역의 미디어아트를 선도하고 있는 VM아트미술관의 11번째 기획 전시로, 활발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다양한 미디어와 조형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예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중 조형예술 작가 이원경 아티스트의 작품은 알루미늄 와이어를

뜨개질 기법으로 엮어내는 방법으로 이미지의 양가성을 통한 상충효과와 자유로움을 표현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 배희경, 여정민 등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예술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람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문의는 삼례문화예술촌(070-8915-8121), VM아트미술관(070-8915-8123)으로 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2015 산림문화 체험교실 안내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복권기금(녹색자금)으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명	지적장애인 대상 (정원 80명)	소외계층 대상 (정원 80명)	일반인 및 대학생 대상 (정원 80명)
일시	2015년 5월 7 ~ 8일 6월 10 ~ 11일 6월 25~26일	2015년 7월 30 ~ 31일 8월 6 ~ 7일	2015년 9월 18일~19일
장소	전북대학교 부안 학습림	전북대학교 부안 학습림	전북대학교 농생대 본관 시청각실
교육내용	마음을 담은 동심결 명패만들기, 숲체험, 숲속에 사는 '나는 새'	마음을 담은 동심결 명패만들기, 숲체험, 전래놀이 숲속에 사는 '나는 새'	나무종착하기, 가지치기하기 세균관찰하기, 숲가꾸기교육
참가비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및 문의	산림환경과학과 (063-270-2491) 담당자 : 황병재 (010-2928-0943)		

주최: (사)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후원: Locom 복권위원회 산림청 녹색사업단